‘개통 20년’ 광주도시철도, 지구 752바퀴 달렸다

누적 이용객 3억 2600만명…초고령화에 무임 수송 하루 1만5000명

2004년 1호선 개통 후 2008년 완전 개통…2026년 2호선 1단계 개통

오는 28일 개통 20주년을 맞는 광주 도시철도가 그동안 운행한 거리만 지구 752바퀴(3014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1호선은 2004년 4월 28일 녹동역부터 상무역 구간을 최초로 개통했고, 2008년 4월 11일 평동역 구간까지 완전 개통했다. 총 20개 역 20.5㎞로, 20년간 누적 이용객은 3억 2600만여 명에 이른다.

일평균 이용객 수는 개통 초기 3만명에서 2019년 5만3000여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폭 감소했다.

현재는 하루 4만6800여명 선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 운임(현금 기준)은 2004년 700원으로 시작해 2005년부터 3년간 매해 100원씩 올랐고 2011년 1200원, 2016년 1400원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광주 도시철도의 운임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하철 운임 현실화에 따른 요금 인상 등도 검토되고 있다.

운수 수입은 일평균 1500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증가했으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 수송 인원도 하루 7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탑승객이 가장 많은 역은 광주송정역이며, 하루 평균 4746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하철역의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8~9시이며, 전체 이용 인원의 9.4%를 차지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승객은 8.6%로 전체 이용객의 18%가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년간 가장 많은 승객이 탄 날은 광주에 30㎝ 넘는 폭설이 내렸던 2022년 12월 23일로, 하루 동안 8만 4789명이 이용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도 한창이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은 2026년 12월, 2단계 구간은 2029년 말 개통 예정이며 2호선이 개통하게 되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교통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9월 광주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하고, 공공 자전거,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무사고 운행 등 뚜렷한 성과도 내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 경영평가 10년 연속 우수기관,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기관,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 등을 이뤄내며 경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20년간 보내주신 시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발이 되어 시민 행복을 위해 쉬지않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08년 4월 평동역 구간 완전 개통 당시 광주 도시철도 차량이 1호선 구간을 시운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유럽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현지 시간) 덴마크 베스타스 린도 터빈공장을 방문,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오덴세항서 목포신항 활성화 구상

해상풍력 허브 조성 롤모델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현지 시간) 오후 덴마크 오덴세 항을 찾아 오덴세 항만 사의 모튼 디더리히 사업개발 수석 매니저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터빈공장을 시찰했다.

오덴세 항은 글로벌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퓐섬 동북쪽에 위치한 덴마크 최대 항만이다. 150개가 넘는 해상풍력 기업이 입주해 1800여 종이 넘는 해상풍력 부품·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의 약 20%가 오덴세 항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오덴세 항에서 해상풍력의 연구개발-생산-조립-운송-설치-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남도는 오덴세 항을 롤모델 삼아 목포신항을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조성할 계획으로,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A.P 몰러-머스크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는 오덴세 항만에 위치한 세계 1위 터빈기업 베스타스 린도 공장을 시찰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린도 공장은 약 4만㎡ 규모로 여러 모델을 생산한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의 핵심이자, 초도품 생산 시설이다.

김 지사는 “거대한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조립되는 과정을 직접 보니,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될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더욱 기대가 된다”며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적기에 준공되도록 인허가, 투자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현역 국회의원 7명 물갈이…광주시의회 의장 선거 관심 집중

시의회, 7월 초 후반기 원구성 진행

민주당 재선 4명·초선 4명 등 거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지역정가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시의원들이 동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 후반기 의장단은 2년 뒤 지방선거 출마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시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임기는 오는 7월10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7월 초께 후반기 원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은 총 23명이며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다.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의장 후보들의 구도는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그룹으로 나뉘는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재선 의원은 박미정(동구2)·신수정(북구3)·심철의(서구4)·조석호(북구4) 의원 등이다.

신 의원은 북구의회 3선 후 시의원 재선을 이어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재선 의원들 역시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체급을 기르고 있다.

초선 의원 중에는 강수훈(서구1)·박희율(남구3)·안평환(북구1)·홍기월(동구1)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과 홍 의원의 경우 시의원이 초선일 뿐 이전 구의회에서 의장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재선 그룹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의회 의장은 향후 기초·광역단체장 출마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비엔날레 재단,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모두 주관

아트페어는 문화재단에 일임

광주 미술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 운영기관이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그동안 재단법인 광주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해 왔던 디자인 비엔날레를 앞으로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술을 다루는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디자인을 다루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광주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앞으로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비엔날레 운영을 넘기는 대신 본연의 역할인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에 전념하게 된다.

광주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는 통상 해마다 번갈아 열리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엔 모두 개최됐다. 올해는 광주 비엔날레, 내년에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다시 번갈아 열린다.

광주시는 지역 대표 문화예술 행사 중 하나인 아트페어도 매번 주관 단체를 공모하던 것을 문화재단에 일임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이 완공되면 기존 전시관은 파빌리온 상설관으로 꾸미고 매입·기증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비엔날레와 함께 오월 축제를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

강 시장은 “오월 민중 축제를 준비하겠다”며 “민중은 1980년대 이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마당극 등에서 확산하면서 고유어로 정립됐다. 광주 오월을 대한민국, 세계가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임태형 감사원 부감사관 임명

광주시는 24일 신임 시 감사위원장에 임태형(50·사진) 감사원 부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정안보감사국·감찰담당관실·특별감찰 공공기관 특별조사국·공공기관 감사국 등을 거쳤다.

임 위원장은 “부패가 있는 곳에 감사위원회가 있다”며 “부패를 예방하고 광주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먼저 변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